

불행한 세계 시대의 일그러진 대학

장 일 조

한신대 철학과 교수



1. 오늘날 해외유학과 그 문제점

요즘 IMF 시대를 맞아 해외유학을 떠났던 유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 도중에 돌아오고들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해외유학에 대해 자성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학비 조달이 어려워니까 해외유학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생각이 아니고, 매우 경제주의적인 관점이다. 본래 해외유학은 돈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간다는 경제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교육적 요청 자체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 이것은 원칙론이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적 요청에 의해서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해외유학은 어렵다.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는 것은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가 될 것이다.

오늘날 필자는 해외유학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대학사회의 현실문제로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역사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하나는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나라의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우리의 학문후속세대들을 세계 각국으로 많이 내보내어 해외유학을 시킬 만한 형편이 못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쓰라릴 만큼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바와 같다. 여기에는 학문적 사대주의, 도피성 유학, 그리고 허영이 섞인 학벌주의 등이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유학은 경제적 영

향에 더욱 허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해외유학은 당연히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미 역사적으로 오랜 대학교육 전통을 가지고 있고, 현대적 대학교육의 역사도 50년이나 축적되어 있는 마당에 여전히 앞으로도 값비싼 해외유학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이것은 우리 대학교육의 이념적 자립·자주·주체성의 문제 이면서, 동시에 그 학문적 역량의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 대학교육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의 대학 이념과 그 학문성을 모범으로 하여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한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매우 깊고 폭넓은 철학적 반성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래야만 우리 대학이 해외유학에 지불하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값이 과연 그 값에 걸맞은 가치를,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라는 총체적 삶의 본질에서, 놓치지 않고 획득하며 실현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검증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총체적 삶의 본질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바의 전인교육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일차원적인 삶의 단순한 수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인생에서 한낱 거대한 낭비와 소모일 뿐이기 때문에 마땅히 단호하게 혁명되어야 할 것이다.

2. 도대체 본래 대학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주제를 ‘불행한 세계 시대의 일그러진 대학’이라고 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불행하다는 것은 세계관적 문명사자들의 일

치된 관점이고, 우리네 보통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상적 감정(정서)이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시대가 우리의 총체적 삶을 의지하고 사는 세계를 전일적으로 올바르게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올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의 위기에서 오는 감정(정서)이라고 본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계는 전반적으로 경제중심주의에 집중되거나, 기울어졌거나, 사로잡혀 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불행이다. 역사상 가장 빛나는 경제적 부를 획득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세계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불행하고, 비판적인 감정(정서)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전일적 세계에 상응하게 인간이 전인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못한 존재론적 정체성의 불안정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오늘날 세계의 모든 대학이 갖고 있는 학문의 체계가 세계관적으로 파괴되고, 그 내용이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대학을 university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세계의 전일적 통일성으로서의 질서 정연한 우주를 뜻하는 universe에서 왔다. 질서 정연한 우주적 세계란 신[정신, 天]과 인간[영혼과 육체, 人]과 자연[물질, 地]이 전일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세계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세계체계를 우리는 universe(cosmos)라고 하고, 그러한 세계존재를 체계적으로 연구(study)하는 데가 university다. 그러므로 대학이란 본래 우주적 세계존재를 체계적으로 인식(Wissen)하는 곳이기여, 세계존재라는 인식대상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 ; 보통 인문과학이

라고 부르는 차원이다)과 인간·사회·역사 과학(Human - Socio - Geschichtswissenschaften ; 보통 사회과학이라고 부르는 차원이다)과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 ; 보통 자연과학이라고 부르는 차원이다)이라는 세 가지 학문이론적 분야(보통 학부라고 부르는 차원이다)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래 대학이 이러한 세 가지 학문이론적 분야(학부)를 갖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사무적 편의 때문도 아니며, 세계체계가 정신(天)과 정신 및 물질(人)과 물질(地)의 세 차원으로 되어 있는 그의 존재론적 성격(본질)에 상응하게 인식론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인간존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진리) 때문이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체계적 세계존재와 거기에 상응하는 올바른 세계인식체계로서의 대학의 학문이론적 체계는 감각적 자연과학의 강화로 이성적 정신과학이 약화되고, 현실적 인간·사회·역사과학의 강화로 다시금 순수한 원리적 자연과학이 그 도구·기능적 응용기술과학으로 퇴화·변질하는 지식사회학적 상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정신(영혼)과 물질(육체)의 복합체인 인간이 그들의 인간·사회·역사과학의 지배적 성격을 현실주의적으로 결정하는 데 따라서, 오늘날 세계는 신은 죽고(정신과학의 약화) 자연은 정복되는(자연과학의 원리적 성격에서 실용적 성격으로의 전환), 세계 대학의 학문의 체계 파괴와 그 내용의 혼란이라는 비극적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본래 대학이 전일적 세계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왔고, 또한 현실적 인간·사회·역사과학 중심으로 세계를 왜곡되게 인식하는 데서 왔다. 인간존재는 세계존재의 중심이 아니고, 세계체

계를 조직하고 있는 거대한 우주적 그물의 한 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정신)과 인간(정신과 물질)과 자연(물질)의 유기적 통일이라는 우주적 좌표 속에서, 신을 죽이고(유물론적 무신론) 자연을 짓밟는(도구·기능적 기술과학) 일탈한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과 학문이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은 본래적인 의미의 참다운 대학이 아니고, 오로지 육체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동물이 지배하는 경제중심주의적 사회에 도구·기능적으로 봉사하는 한낱 오합지중 대학(multiversity)이다. 이것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불행한 세계의 일그러진 대학이며, 주로 미국과 서구의 선진 산업국가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육성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소비사회에 봉사하는 도구·기능적 대학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이렇게 현실주의적으로 기울어진 선진 산업국가들의 대학을 모범으로 하여 얼빠진 상태로 모방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진 산업국가들의 대학교육 이념은 전일적 세계(universe)의 체계와 구조를 올바로 알고, 거기에 올바로 상응하는 대학(university)이 아니다. 그런데 전일적 세계체계와 그 구조는 이렇게 그 전체성이 해체되어 잠정적으로만 유효하고, 아무 전망없는 우리 시대의 경제중심주의적 산업사회의 도구·기능적 대학과 그 학문이론을 결코 오래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경제중심주의라는 것이 전일적 세계관의 체계(universe)에서 결코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세계관적 학문이론에 기초한 대학(university)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구·기능주의적으로 기울어져 빗나간 대학교육에서 신과 인간과 자연의 전일적 통일성과 같은

절대적이고 지속(항구)적으로 의미(가치)를 가지는 총체적 삶의 본질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의 대학교육이 육체(현실)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이념)을 파는 저 파우스트적 잘못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을 되풀이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정신이 나갔기 때문이다.

3. 대학의 혁명과 혁명의 대학

이제 결론은 스스로 자명해지는 것 같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고, 이러한 인간의 확대재생산물인 사회는 문화(영혼)와 경제(육체)로써 서로 상응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사회)이 사는 데는 먹고 사는 육체적 생존(Uberleben ; 경제), 더불어 사는 사회적 공존(Zusammenleben ; 정치), 그리고 불멸의 영생(ewiges Leben ; 문화)의 세 차원이 있다. 그런데 인간과 그 사회와 역사가(인간·사회·역사과학) 이러한 세 가지 삶의 차원 가운데서 어느 것을 집중·중점·경향적으로 선택하는가의 문제는 사회내(內)적인 계층(계급)간의 계층(계급)적 역동성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인간집단의 사회외(外)적인 신(정신 ; 天)과 자연(물질 ; 地)과의 집단적 역동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인간과 그 사회와 역사에 있어서의 삶의 이념과 방법이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거나 간에, 신과 인간과 자연의 통일이라는 전일적 세계체계에 상응하는 정신·인간(사회·역사)·자연과학의 이념과 방법은 물질적 자연의 기계적 정확성에서, 물질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인간·사회·역사의 합

의의 지속성을 거쳐, 정신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지향하는 거대한 우주적 세계의 목적론적 구조와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일적 세계체계는 그 거시적 전체성에서는 결정론적이고, 그 미시적 국부성에서는 해체론적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진리(정확성)는 인간·사회·역사과학의 진리(합의) 안에서 의미(가치)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운명에 있고, 인간·사회·역사과학의 진리(합의)는 다시 정신과학의 진리(절대적·해방적 자유)의 빛 안에서 목적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정신과학의 절대적·해방적 자유는 다시금 절대적 정신 그 자신의 구체적 객관성으로서의 자연에서 그의 절대적·해방적 자유의 진리를 확증함으로써, 마침내 주(主)·객(客)의 통일을 통한 자기 동일성에 이르러 사물의 참다운 질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물이 국부적으로 단절되고 유기적 상호관계가 폐쇄된 질서 속에 놓여있는 바를 다루는 개별 과학으로서 진리의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의 대학(multiversity)은 마땅히 참다운 대학(university)에 의해서 혁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구·기능적 대학은 감각(감성)적 인간과 그에 상응하는 경제중심주의적 사회가 세계존재를 물질적인 것(유물론)이라고 보고, 인간의 삶을 육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주의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대학은 물질적 세계(존재론)와 그러한 세계(사물)의 감각적 인식(인식론)과 인간의 육체적 삶의 생물학적 생존(윤리학)이라는 철학적 기초 위에다 그들의 정신과학과 인간·사회·역사과학과 자연과학의 이념과 방법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이론에서는 자연은 인간, 인간은 신을 지향하는 신과 인간과 자연의 통일이라는 전일적 세계관은 무너지고, 감각·감성적 인간의 육체와 그 상응물인 사회의 경제를 위하여,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이성적 정신화를 요구하는 명령자인 신(정신; 天)을 죽이고, 인간의 육체와 사회의 경제를 위한 욕망 충족의 원천인 자연(물질; 地)을 과학기술적으로 정복·지배함으로써, 인간 자신(정신과 물질의 복합체)의 영혼과 육체 사이의 정체적 갈등 및 문화적 인간과 경제적 인간 사이의 사회적 갈등은 물론(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이러한 육체적·경제적 인간과 물질적 자연 사이의 존재론적 갈등으로(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 전인적 인간(영혼과 육체)의 존재근거인 신(정신)의 부정과 자연(물질)의 파괴라는 역사종말론적인 한계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러한 인간이 추구하는 오늘날의 기술과학적 산업사회의 세계대학과 그것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추종하는 현존 한국의 대학들을 그대로 가(可)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절단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일적 세계상을 깨뜨려서 그 가운데 하나의 퍼즐 조각 같은 것을 붙잡고 노닥거리는 것을 대학의 이념과 방법으로 하는 오늘날의 세계대학은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한 어떤 의미(가치)있는 대답도 주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한낱 낭

비와 소모의 무의미한 인생을 확대재생산할 뿐이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에 인생에 있어서 부와 권력과 명성이 허무하다는 것이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삶의 진실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대학은 혁명되어야 하고, 이렇게 혁명된 대학을 통해서, 산산조각난 오늘의 세계상을 전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혁명하는 대학을 창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그렇게 사는 거기에, 신과 인간과 자연이 통일된 세계를 기약하는 대학의 혁명과 혁명의 대학이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선진국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 없다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오히려 전인적 인간의 총체적 삶의 참다운 의미와 가치를 기약할 수 있는 대학다운 대학이 세계의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이념 부재의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사실 때문에, 세계의 어느 대학으로도 유학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장일조 / 훔볼트 재단 교수장학생으로서 독일 보쿰 대학 철학부에서 수학하고, 현재 한신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철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욕망과 충족의 변화 체계-세계관의 변증법』 등이 있고, "세계체계의 변증법적 구조를 위한 비망록-신과 인간과 자연의 통일", "사물의 질서에 대하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